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2권 제3호(통권 제87호, 2011 · 가을호)

교도소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분석: 피해 경험과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윤 옥 경**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교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행위의 실태와 발생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 교도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를 분석하였다. 수형자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들인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최근에 관심이 일고 있는 피해 경험과 규율위반 행동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교정행정의 절차적 공정성이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았다.

전국의 20개 교도소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변수로 선정된 변수들 중에서 유입모형의 변수인 연령과 자기통제력, 박탈모형의 변수인 구금고통과 구금기간이 상당히 일관되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영향력은 규율위반행위를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도 큰 변화가 없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이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피해경험은 상당히 크고 일관된 영향을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피해두려움이나 직원에 대한 신뢰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끝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 교도소 수형자, 규율위반행위, 유입모형, 박탈모형, 피해경험, 피해두려움, 피해-가해 연계, 절차적 공정성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의 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 2008-147-0).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I. 연구의 목적

교도소는 범죄자를 구금하여 그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면서 동시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를 교정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범죄자를 한 공간에 수용하여 형을 집행하면서 그들의 교정을 위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출신배경이나 성격이 제각각이고, 필요와 욕구도 다양하며 생활습관도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다양하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질서 있고 안전한 교도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교정당국이 풀어야 할 큰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확보는 실효성 있는 교정처우의 시행과 그 효과성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화에 대한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 실무의 차원에서나 학문적인 영역에서 모두 교도소 안전과 질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탐구가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관심은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규율위반 행동(rule-violation conduct) 또는 문제행동(misconduct)으로 일컬어지는 교도소 내에서의 수형자의 행동은 매우 다양하다. 수형자간의 갈등의 언어적 표출에서부터 심각한 다툼이나 폭행과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자살시도와 자해 등 뿐 아니라 교도관에 대한 폭언, 폭행, 입실거부나 지시불이행, 소란, 물건훼손, 남의 물건 절취, 부정물품 반입과 매매 등 광범위한 행동이 포함된다. 교정사고 공식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형자들의 규율위반 행동의 일면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수형자간의 상해나 폭행치상, 교도관에 대한 폭행, 그리고 소란 난동 등의 폭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 또한 통계로

1) 공식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교정사고의 항목은 도주, 상해, 폭행치상, 폭행치사, 공무방해(직원폭행), 폭력행위(소란 난동 등), 뇌물공여와 기타항목이다. 2010년에는, 전체 712건 중에서 상해, 폭행치상, 공무방해, 폭력행위, 기타가 708건으로 99%이고 도주와 폭행치사는 1% 정도이다. (2010년 법무부 주요정책 자체평가보고서, 844쪽). 그러나 이 교정사고 건수는 형사입건 송치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보다 훨씬 적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잡고 있지는 않지만 입실거부나 지시불이행 등의 규율위반 행위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규율위반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행해져왔다.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으로 일컬어지는 설명들이 교도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원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유입모형에서는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행동은 그들이 입소 전 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특성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박탈모형에서는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가지고 수형자 행동을 설명한다. 이 두 모형의 설명력은 많은 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두 모형이 모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두 모형의 검증에서 더 나아가 교도소 내에서의 수형자의 피해경험과 교정행정의 절차적 공정성, 혹은 교정에 대한 신뢰가 수형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율위반 행위 중 많은 부분이 피해대상이 있는 폭력행위라고 볼 때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는 인식하에 규율위반행위에 있어서의 피해-가해의 연계 현상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또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의 역할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공정한 규칙의 적용, 수용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직원-수형자간의 신뢰가 수형자들의 규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측면이 수형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도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먼저 전통적으로 수형자 행동을 분석하는 데 적용되어 온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설명력을 알아보고, 나아가 수형자의 피해경험이 수형자의 가해행동인 규율위반 행동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절차적 공정성과 합법성의 차원이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느 특정이론의 경험적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교도소 수형자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여러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이며 이것을 통해 수형자 규율위반행

위를 줄이고 교도소 질서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보다 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한국의 수형자 규율위반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으로 수형자 행동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논의와 함께 수형자의 교도소 내 피해경험과 피해 두려움에 대한 최근의 논의,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수형자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검증

교도소 수형자 행동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수형자 대 수형자 폭력이나 수형자 대 교도관 폭력, 자살, 자해와 같은 문제행동, 그리고 기타 지시위반이나 교도소 내 규율위반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있다.

유입모델(importation model)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 등의 요인을 수형자들의 개인적 특징에서 찾고자 한다. 즉 폭력적 태도와 반사회적 행위습관을 가진 개인이 교도소에 들어옴으로써 교도소 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일으킨다는 논리이다. 이에 반해 박탈모델(deprivation model)에서는 교도소생활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행동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구금으로 인한 박탈감, 제한된 접견, 엄격한 규율 등이 교도소내의 폭력행위와 규율위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폭력과 규율위반 행위는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하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한다(Reisig and Lee, 2000).

먼저 유입모형(importation model)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행

동양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행위자의 연령, 인종, 학력, 입소 전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여부(Alpert, 1979; Thomas, 1977; Wright, 1991)나, 과거의 범죄전력, 예컨대 유죄판결 횟수, 체포횟수, 범죄유형, 첫 체포연령, 전과횟수(Wellford, 1967; Zingraff, 1980), 또는 수형자의 법의식이나 준법의식(Thomas and Poole, 1975)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경험적 지지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했다. 박탈모형(deprivation model)의 지표는 교도소 입소 횟수와 구금기간(Gruninger, 1975; Tasca et al., 2010), 무력감이나 소외감(Smith and Hepburn, 1979; Hymann, 1977), 교도관에 대한 태도(Gruninger, 1975), 접견이나 교정 프로그램 참여(Jiang and Fisher-Giorlando, 2002; Steiner and Wooldredge, 2009; Tasca et al., 2010)를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 박탈모형이 유입모형보다 수형자의 행위를 더 잘 설명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양대 모형이 모두 어느 정도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형자의 교도소 내 폭력행동에 대한 연구물 39개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Gendreau, Goggin, and Law(1997)는 수형자 개인의 반사회적 태도와 행동뿐 아니라 구금시설의 환경적, 구조적 조건들이 모두 수형자의 폭력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수형자 행동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수형자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Huey and McNulty(2005)는 박탈모형과 과밀수용을 채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박탈모형에서는 자유박탈과 통제력의 결여,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의 고통이 자살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는 반면 과밀수용이론에서는 교도소 과밀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교도소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결과로 수형자를 자살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박탈의 고통은 과밀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그들은 미국 주, 연방 교도소에 대한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는데, 박탈과 과밀이 독립적으로 수형자의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과밀여부가 수형자 자살에 대한 박탈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형자의 자살이나 자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원인을 개인적 심리적 장애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Steiner and Wooldredge(2008)는 미국의 203개 교도소에서 1만 여명의 남성수형

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 규율위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수형자의 연령, 입소 전 취업여부, 신체적 학대경험, 약물범죄 경험, 과거구금경력, 징역기간, 수용기간, 프로그램 참여여부, 작업참여 여부 등이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지표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 Kerley, Hochstetler and Corpes(2009)는 자기 통제력이 수형자들의 규율위반 행동과 폭력피해 경험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유입모델의 검증을 시도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자기통제력의 요소인 위험추구경향(risk-taking)이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고, 기질(temper)이 규율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결과 밝혀내었는데, 자기 통제력은 유입모델의 지표라고 볼 때 유입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법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Reisig and Lee(2000)는 우리나라의 1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54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구금에 의해 생성된) 그들의 반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4단계의 교도소 보안수준(매우 유동적, 유동적, 엄격한, 매우 엄격한)과 무력감 척도, 그리고 수용기간이다. 회귀분석결과 구금수준과 무력감척도가 수형자의 반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홍(2009)은 수형자간 상호단결과 충성, 교도관에 대한 저항,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 부정 등 반사회적 태도를 교도소화의 지표로 선정하여 이들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자 시도하였는데, 박탈모형이나 유입모형의 지표는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반면 자기통제력은 교도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윤옥경(2010)은 유입모형의 변수와 박탈모형의 변수가 수형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입모형 변수인 연령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박탈모형의 변수인 구금고통과 구금기간이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입모형보다는 박탈모형의 설명력이 모두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2. 교도소 수형자의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

교도소 수형자들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O"donnell and Edgar, 1999; Woodredge et al., 2001; Hochstetler and DeLisi, 2005; Hemmens and Marquart, 2005; South and Wood, 2006;Wolff, Shi and Bachmann, 2008; Wolff and Shi, 2009a, 2009b; Lahm, 2009) 수형자들의 피해경험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피해경험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수형자의 교도소 내 적응과 규율위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Lahm(2009)은 교도소에서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피해의 수준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교도소 환경요인을 밝히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의 30개 교도소 수형자 1,054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13%가 신체적 피해를 보고하였고, 25%가 재산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인종과 폭력가해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신체적 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재산피해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취업경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함께 교도소의 보안수준과 유색인종 수형자의 비율 등 교도소 수준의 변수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olff and Shi(2009a)는 7000여명의 남성수형자와 560명의 여성수형자를 대상으로 7가지의 신체적 피해유형에 대한 피해자조사(victim survey)를 시행하였다. 수형자가 수형자에게 하는 피해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절도였지만 여성수형자의 경우가 더 비율이 높았다. 남성수형자들은 절도 다음으로 칼이나 송곳 따위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 손바닥이나 손, 발로 때리는 것 순이었다. 여성수형자의 경우에는 절도 다음으로 손바닥이나 손발로 때리는 것이 두 번째로 많은 폭력피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를 직원에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여 모두 신체적 피해가 심각할수록 이를 신고할 경향이 높았다. 그들의 또 다른 연구(2009b)에 따르면 피해를 경험한 수형자들은 경험하지 않은 수형자들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emmens and Marquart(2005)는 텍사스 주의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

지 않은 775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의 두려움(fear of victimization)을 파악하고 그러한 인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는데, 연령과 교육수준, 첫 체포연령, 구금기간과 과거구금경력 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첫 체포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의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피해두려움은 그의 교도소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D"Donnell and Edgar, 1999; Wooldredge, 2003)도 있으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수형자들은 작업이나 교정 프로그램, 체육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Daggett and Camp, 2009:5). 일련의 학자들은 수형자의 문제행동이나 폭력이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교도소라는 폐쇄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용자간 또는 수형자와 교도관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이전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 또는 자기보호의 차원에서 폭력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Tasca, Griffin and Rodriguez(2010)는 성인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폭력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연령, 인종, 범죄유형, 과거 범죄경력과 갱 멤버쉽, 복역기간, 피해경험, 외부와의 접촉빈도, 보안수준, 교도소에서의 자유정도를 활용하였다. Arizona주와 New York주의 남성 소년범 395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무기로 위협받은 경험과 다른 수형자로부터 물건을 도둑맞은 경험으로 측정-이 폭력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피해경험이 수형자의 폭력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폭행이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지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피해경험이 수형자들의 규율위반 행동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주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규율위반간의 관계를 알아 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과 규율위반간의 상관관계가 .57로 나타나 교도소 내에서의 피해와 가해의 중첩적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였고(윤옥경, 2009), 외국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경험과 규율위반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윤옥경, 이헌영, 2010)에서는 외국인수형자의 피해경험이 규율위반에 유의미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인과적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폭력적 하위문화, 그리고 처우만족도가 함께 고려되었는데, 이들 독립변수 중 피해경험이 규율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최근에 수형자의 행동규범(inmate code)이 규율위반행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윤옥경, 2011)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수형자의 행동규범이 규율위반 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에 도달하지 못했던 반면 피해경험은 규율위반행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베타값이 .55로 독립변수 중 가장 큰 효과를 가졌다.)

3.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논의

최근에 와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나 합법성(legitimacy)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수형자의 행동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Tyler, 2003). 상대적으로 소수인 교도관들이 다수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강제와 처벌보다 수형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도소 운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절차적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법성에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Jackson et. al.(2010)이 제시하고 있는 교도소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의 4가지 요소는 첫째, 수형자들의 의견을 교정행정에 반영하고, 둘째, 편파적인 행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셋째, 수형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한 처우, 그리고 넷째,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한 신뢰이다. Bottoms(1999;261)는 직원과의 신뢰관계 형성과 좋은 관계의 유지는 신체구속이나 감시보다 수형자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합법성이 수형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에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Reisig and Mesko(2009)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이 그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수형자가 직원들의 업무공정성을 평가하고 직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수록 규율위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선정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31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이다. 구치소의 미결수형자와 소년교도소, 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제외하였다.[2] 표본선정 방법은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치소와 소년교도소, 여성교도소를 제외한 31개 교도소 중에서 20개의 교도소를 선정하였다. 20개 교도소의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적 분포를 위해 4개 지방교정청별로, 또 교도소의 유형으로는 재범이하교도소와 재범이상 교도소로, 또 교도소의 규모별로는 수용인원 1000명 이상과 1000명 이하의 교도소로 나누어 각 기준을 만족시키는 교도소가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의 수는 1000명 이상의 교도소에는 각 60명, 1000명 이하의 교도소에는 각 40명을 할당하였다.[3] 그 다음, 각 교도소별 응답자의 선정은 우선 해당 교도소에 1년 이상 수용생활을 한 수형자를 원칙으로 하며, 출역수와 미지정[4]을 각 50%씩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표본선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까닭은 교도소의 여러 가지 특성과 함께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첫째, 교도소의 규모나 재범이상/이하의 여부에 따라 규율위반행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둘째, 출역수와 미지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도소 수형자에 대해 집단설문을 하는 경우, 계호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장 동원하기 쉬운 수형자집단(주로 공장출역수나 직업훈련생, 교육생)을 교도소당국이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허가를 받은 후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

2) 2008년 현재 총 49개의 교정시설이 있었으며 구치소와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를 제외한 교도소의 수가 31개이고, 이 중 20개의 교도소는 65%에 해당한다.

3) 그러나 할당된 표본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지는 않고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 융통성 있게 수형자 수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4) 미지정이란 출역이나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지정받지 않은 수용자를 일컫는 말이다. 미지정의 이유는 다양해서 몸이 아프거나 일이나 교육 등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회가 부족하여 원하는 경우에도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국의 각 교도소를 연구단이 직접 방문하여 집단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수형자 986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주요변수의 측정

종속변수 : 규율위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교도소 내 수형자의 문제행동, 다시 말해 규율위반 행동이다.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형자관리규칙을 위반한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수용생활 지침』에서 주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금지행동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료수형자간 폭언과 폭력의 사용이나 교도관에 대한 폭언, 폭력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들, 예를 들어 부정물품 반입과 소지, 자해, 자살시도, 입실거부, 통방과 통모[5], 부당한 금품 요구, 타인의 물건 갈취, 이물질 삽입, 도박 등 내기, 금지물품 사고팔기, 흡연, 주류 제조, 성적 접근과 유사성행위, 고성과 소음유발, 시설물 훼손 등을 포함하였다. 21개의 문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전혀 한 적 없다" 에서부터 1-2번, 3-5번, 6-9번, 10번이상의 네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산술적으로 합한 값으로 규율위반 변수를 구성하였다.[6] 또한 규율위반 행위를 폭력규율위반행위, 재산규율위반 행위, 그리고 기타 규율위반행위[7]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규율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

5) 통방(通房)은 서로 다른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간의 대화, 통모(通謨)는 모의를 꾀하는 것을 말하며 규율위반으로 규제되는 행동이다.

6)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였다.

7) 폭력규율위반행위는 욕설,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에서부터 몸싸움과 폭행, 자해와 자살시도, 성추행 등 물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재산규율위반행위는 부당금품 요구, 물건 뺏기, 도박 등 불법내기, 금지물품 매매와 물건 훼손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규율위반행위는 지정장소 이탈, 입실거부, 통방통모, 이물질 삽입, 소음유발, 주조와 흡연 등이 속한다,

독립변수

1.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지표

유입모델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령과 입소 전 취업여부(더미변수), 범죄유형(더미변수)[8], 자기 통제력을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소라고 알려진 충동성, 단순한 일의 선호, 급한 성미, 위험한 일의 선호, 자기중심성,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Grasmick, Tittle, Bursik, and Arneklev, 1993).[9] 박탈모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지정여부(더미변수)[10], 구금고통, 징역기간, 거실밀도를 선정하였다. 구금의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ykes(2007〔1958〕)가 제시하고 있는 5개 영역의 구금의 고통, 즉 자유박탈의 고통, 물질적 소유를 하지 못하는 고통, 성적인 욕구를 발산할 수 없는 고통, 안전의 위협에 따른 고통, 그리고 사생활을 확보하지 못하는 고통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거기에 다 우리 교정현실을 반영하는 고통,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고통과 마음맞지 않는 수형자들과 거실에서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고통을 추가하여 수형자들이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7문항의 구금의 고통에 대해 “매우 견디기 힘들다” 부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까지 4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여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항목 간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alpha값은 .88로 계산되었다.

---

8) 범죄유형은 유입모델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수 중 하나이다. 즉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강력범죄자들은 교도소내에서도 폭력적인 행동과 언사를 더 많이 하고 따라서 규율위반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9)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밌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오늘 당장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우선 그 일을 한다.’의 6개 문항이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값은 .84였다.

10) 미지정 여부를 박탈모델의 측정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미지정자들에게 있어 자유박탈로 인한 구금의 고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이 채 안되는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거실에 갇혀 생활해야 하는 이들은 지루함과 단조로운 생활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피해경험

수형자의 다양한 피해의 유형별 경험을 신체적 피해, 재산 또는 금전적 피해, 심리적 피해, 성적 피해를 다 포함하고자 하였다.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맞은 적,” “목을 졸리거나 물에 처박힌 적,” “물건이나 오물을 맞은 적,” “연장이나 흉기로 맞은 적,” “집단적으로 뭇매를 때리겠다고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지 등은 신체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물건을 빼앗기거나 망가뜨린 적”, “사기당하거나 손해 본 적” 등에 대한 질문은 물질적, 금전적 피해의 지표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과 “강요된 유사성관계”의 경험은 성적 피해를 위한 문항으로, “욕설이나 조롱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거실에서 강요된 일을 하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는 지의 경험은 심리적 피해 또는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하여 총 15개 문항을 피해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최근 1년간의 경험빈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전혀 없다,”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의 응답범주를 주어 표시하게 하였다. 비율척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해 피해지수(victimization index)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뢰도지수인 cronbach's alpha는 .880으로 피해를 측정하는 신뢰성있는 문항구성임을 확인하였다.

3. 피해의 두려움(fear of victimization)

피해와 가해의 연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변수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다.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수형자 개인의 안전감과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적대적인 반응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수형자의 적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유형별로 문항을 제시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체적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못살게 굴까바 두렵다,” 심리적 폭력피해 또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할까바 두렵다,”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릴까바 두렵다,” 성적 폭력의 피해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당할까바 두렵다,”

로 물질적 피해를 위해서는 “내 물건을 빼앗거나 몰래 가져갈까바 두렵다”라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로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5개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89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비율척도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점수의 합으로 피해두려움 지수(fear of victimization index)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임을 확인하였다.

4. 직원불신

앞서 제시한 교도소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구성하는 네가지 요소 중에서 직원들에 대한 신뢰정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변수는 “직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직원들은 수형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직원들은 수형자들을 차별한다” 등의 3가지 문항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원에 대한 불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값은 .81이었다.

IV. 분석결과

1. 관련변인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명)	비율(%)
연령	10대	7	0.7
	20대	228	23.5
	30대	312	32.1
	40대	292	30.0
	50대	113	11.6

	60대 이상	20	2.1
	합계	972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81	8.4
	중학교 졸업	216	22.3
	고등학교 졸업	466	48.1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180	18.6
	대학원 이상	25	2.6
	합계	968	100.0
입소전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100	10.4
	100만원 미만	114	11.9
	200만원 미만	336	35.0
	300만원 미만	205	21.4
	300만원 이상	205	21.4
	합계	960	100.0
수형자 유형	출역수	376	38.6
	미지정	358	36.8
	직업훈련생	168	17.2
	학과교육생	40	4.1
	기타	32	3.3
	합계	974	100.0
현재 급수	1급	59	6.1
	2급	216	22.5
	3급	554	57.7
	4급	131	13.6
	합계	960	100.0
본범내용	강력범죄	443	47.8
	폭력범죄	72	7.8
	재산범죄	250	27.0
	마약범죄	43	4.6
	기타	118	12.7
	합계	926	100.0
프로그램 참여여부	있다	125	12.9
	없다	845	87.1
	합계	970	100.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형자 특성은 위의 <표 1>과 같다.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아 3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0대(30%), 20대(23.5%), 50대(11.6%)의 순이다. 60대 이상도 2.1%가량 있으며, 10대도 0.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반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졸업 이상은 20%를 조금 넘고 있다. 입소 전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이 4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당시 수형자 유형을 보면 출역수(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38.6%, 미지정(작업이나 직업훈련, 교육 등에 지정되지 않은 수형자)이 36.8%이며, 그 다음이 직업훈련생으로 17.2%, 학과교육생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에는 노역수(벌금을 내지 못해 대신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도 3.3%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현재 분류급수[11]는 3급이 5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급(22.5%), 4급(13.6%), 1급(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가 가장 많아 47.8%를 차지하고 있고,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자가 27%, 폭력범죄자(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가 7.8%, 마약관련 범죄자가 4.6% 정도이다. 또한 심리치료나 상담 및 각종 교정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보면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9%로 낮았으며 없는 경우가 87%로 대다수였다.

11) 여기서 급수란 누진급수를 말하며 누진급수 제도는 수형자들의 등급을 4단계로 나누어 4급에서 1급으로 점진적으로 승급하는 제도이다. 처음에 입소하게 되면 4급이 부여되며 교도소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승급을 하게 된다. 1급과 2급은 모범수로 지칭되기도 하며 접견이나 전화 등에서 혜택을 받으며 3급과 4급은 대다수의 수형자가 속해 있는 등급이다. 2008년 12월 새로운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급수는 개방처우급(1급에 해당), 완화경비처우급(2급에 해당),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으로 바뀌었다.

2. 관련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2〉 독립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명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972	19	74	39.25	10.27
입소전취업유무	948	.00	1.00	.79	.41
강력범 여부	926	.00	1.00	.48	.49
자기통제력	948	6.00	24.00	19.83	3.37
미지정	974	.00	1.00	.37	.48
구금고통	903	7.00	28.00	15.46	4.73
현 구금기간	879	.333	480.00	39.21	44.88
거실밀도	919	1	18.00	6.19	3.44
피해경험	947	.00	60.00	2.27	4.93
피해두려움	942	7.00	28.00	11.01	3.97
직원불신	941	3.00	12.00	6.83	2.25

분석모델에 포함하게 될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면에서 보면 19세부터 74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연령이 39세로 나타났다. 구금고통 점수는 7점에서 28점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평균값은 15.5점이었다. 현 구금기간의 평균은 39개월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 당 인원의 규모는 1명에서 18명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값이 6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경험의 평균값은 2.27, 피해두려움의 평균값은 11점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원에 대한 불신감은 6.8을 기록하였다.

〈표 3〉 변인들의 상관관계

	연령	취업	강력범	자아 통제력	미지정	구금 고통	구금 기간	거실 밀도	피해 경험	피해 두려움	직원 불신
연령	1										
취업†	.08*	1									
강력범†	-.08*	.01	1								
자아 통제력	.18**	.13**	-.01**	1							
미지정†	-.05	-.05	-.26**	-.01	1						
구금 고통	-.07*	-.05	.02	-.19**	.03	1					
구금 기간	.17**	-.01	.44**	-.07*	-.19**	.05	1				
거실 밀도	.02	.05	-.07*	.04	.09**	-.01	-.09**	1			
피해 경험	.01	-.03	.05	-.09**	.01	.16**	.05	.03	1		
피해 두려움	.01	-.03	-.02	-.32**	.05	.33**	.03	.05	.38**	1	
직원 불신	-.07*	-.03	.08*	.08*	-.02	.20**	.12**	.05	.19**	.37**	1

† 더미변수임
* $p<0.05$; ** $p<0.01$

한편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본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변인들이 '강력범' 변인과 '구금기간'(r=.44)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에는 다중 공선성을 우려할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3. 회귀분석 결과

모든 규율위반 경험을 합한 지수로 만들어진 총 규율위반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은 규율위반 행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인 유입모델의 변인과 박탈모델의 변인이 총

규율위반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 살펴 본 결과이다. 유입모델을 대표하는 지표들인 연령, 입소 전 취업여부, 강력범(죄질), 자기통제력 중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획득한 변인은 연령과 자기통제력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수형자들의 규율위반 행동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한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연령과 자기통제력은 규율위반행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입소 전 취업여부나 강력범 변인의 경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총 규율위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총 규율위반					
	Model 1			Model 2		
	b	standard error	β	b	standard error	β
유입모델						
연령	-.07	.02	-.12**	-.07	.02	-.12**
취업†	-.56	.48	-.04	-.45	.38	-.03
강력범†	-.06	.45	-.13	-.51	.36	-.05
자기통제력	-.29	.06	-.18**	-.24	.05	-.15**
박탈모델						
미지정†	.71	.43	.06	.78	.35	.07*
구금고통	.14	.04	.11**	.02	.04	.02
구금기간	.02	.01	.17**	.02	.01	.17**
거실밀도	.08	.06	.05	.04	.05	.03
피해경험	-	-	-	.66	.03	.59**
피해두려움	-	-	-	-.02	.05	-.01
직원불신	-	-	-	.07	.08	.03
F-ratio	11.063**			51.59**		
R-square	.11			.46		
N	713			690		

† 더미변수임
* p<0.05; ** p<0.01

박탈모델의 변인은 미지정, 구금고통, 구금기간, 거실밀도가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 구금고통과 구금기간이 수형자들의 규율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구금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구금기간이 길수록 규율위반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베타계수를 통해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자기통제력(-.18), 구금기간(.17), 연령(-.12), 구금고통(.11)의 순이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11% 정도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규율위반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두 모델의 변인에다가 새로이 피해경험, 피해두려움, 직원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제 3의 변인들을 추가하여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령과 자기통제력은 새로운 변인들이 투입된 뒤에도 그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크기에서 모델 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연령과 자기통제력은 수형자들의 규율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박탈모델의 변수 중에서는 미지정과 구금기간이 규율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지정은 작업이나 직업훈련, 또는 학과교육 등에 지정되지 않은 수형자로서 운동시간과 접견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하루 종일 거실에서 머물러야 하며 따라서 구금의 고통을 더 느끼고 소 내 질서를 위반하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2] 또 구금기간이 길수록 구금의 고통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규율위반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Sykes(2007〔1958〕)가 제시한 구금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구금고통' 변수는 제 3의 변수들이 모델에 포함되면서 그 유의미성을 상실하고 효과의 크기도 1/6로 줄어버렸다.

규율위반행위를 설명하는 새로운 변인으로 모델에 투입된 세 변수 중에서는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가해를 불러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청소년

12) 실제로 청원이나 인권위 진정,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일삼아 하는 수형자들의 많은 수가 미지정자라고 한다.

의 비행이나 학교폭력, 가출과 성매매, 나아가 여성 살인을 이해할 때도 피해와 가해의 중첩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규율위반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피해경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과는 반대로 피해의 두려움이나 직원불신은 규율위반행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46%로 유입모델의 변인과 박탈모델의 변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큰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피해경험이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폭력규율위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폭력규율위반					
	Model 1			Model 2		
	b	standard error	β	b	standard error	β
유입모델						
연령	-.02	.01	-.07	-.02	.01	-.08*
취업†	-.13	.20	-.02	-.13	.16	-.02
강력범†	.19	.19	.04	.04	.15	.01
자기통제력	-.12	.03	-.17**	-.09	.02	-.13**
박탈모델						
미지정†	.43	.18	.09*	.42	.14	.09*
구금고통	.06	.02	.11**	.01	.02	.03
구금기간	.01	.01	.12**	.01	.01	.09*
거실밀도	.03	.02	.05	.01	.00	.03
피해경험	-	-	-	.29	.01	.62**
피해두려움	-	-	-	-.02	.02	-.03
직원불신	-	-	-	.03	.03	.03
F-ratio	9.083**			52.67**		
R-square	.09			.45		
N	729			705		

† 더미변수임
* p<0.05; ** p<0.01

수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되고 있는 규율위반행위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규율위반 행위를 폭력규율위반, 재산 규율위반, 기타 질서위반행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폭력적 특성을 가진 규율위반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분석한 <표 5>의 모델 1을 보면 유입모델에서는 자기통제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탈모델에서는 미지정, 구금고통, 구금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인은 폭력규율위반행위를 약 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전통적으로 규율위반 행위를 설명하는 분석틀로서 간주되어 온 유입모델과 박탈모델 뿐 아니라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 등 수형자의 피해관련 변인과 직원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직원불신을 함께 고려하였는데 자기통제력, 미지정, 구금기간은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새로이 분석모델에 포함된 변인들 중에서는 피해경험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적 규율위반 행위를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앞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피해와 가해의 연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의 두려움이나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직원불신 변수는 기대와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2의 설명력은 45%로 유입모델과 박탈모델만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피해경험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재산규율위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산규율위반					
	Model 1			Model 2		
	b	standard error	β	b	standard error	β
유입모델						
연령	-.01	.01	-.09*	-.01	.01	-.09*
취업†	-.11	.12	-.03	-.07	.11	-.02
강력범†	-.12	.12	-.04	-.20	.10	-.07*
자기통제력	-.05	.02	-.13*	-.04	.02	-.11*
박탈모델						

미지정†	-.05	.11	-.02	-.05	.11	-.02
구금고통	.03	.01	.09*	.01	.09	.02
구금기간	.00	.00	.13*	.01	.01	.11*
거실밀도	.03	.02	.08*	.03	.00	.06*
피해경험	-	-	-	.14	.01	.49**
피해두려움	-	-	-	-.01	.01	-.03
직원불신	-	-	-	.01	.02	.02

F-ratio	5.90**	26.62**
R-square	.06	.29
N	740	715

† 더미변수임
* p<0.05; ** p<0.01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물건의 파괴나 불법매매 등 재산적, 물질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규율위반 행위를 재산규율위반행위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변수를 고려한 모델 1의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과 자기통제력이 기대한 바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모델 변수인 구금고통, 구금기간, 거실밀도는 재산규율위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폭력규율위반행위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던 거실밀도가 재산규율위반행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발견이다.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 보면 자기통제력과 구금기간은 효과의 크기는 같지만 영향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연령과 강력범, 자기통제력이 모두 재산규율위반행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강력범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재산규율위반행위를 적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박탈모델의 변인 중에서는 구금기간과 거실밀도가 재산규율위반행위를 높이는 효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구금고통은 그 유의미성을 잃었다. 피해경험의 효과는 재산규율위반

행위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29%이다.

〈표 7〉 기타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타규율위반					
	Model 1			Model 2		
	b	standard error	β	b	standard error	β
유입모델						
연령	-.03	.01	-.13**	-.03	.01	-.14**
취업+	.29	.21	-.05	-.23	.19	-.04
강력범+	-.19	.20	-.04	-.36	.18	-.07*
자기통제력	-.14	.03	-.19**	-.11	.03	-.15**
박탈모델						
미지정+	.33	.19	.06	.36	.17	.07*
구금고통	.05	.02	.09*	.01	.02	.01
구금기간	.01	.01	.19**	.01	.00	.19**
거실밀도	.01	.03	.01	-.01	.02	-.01
피해경험	-	-	-	.23	.02	.46**
피해두려움	-	-	-	.01	.02	.01
직원불신	-	-	-	.03	.04	.02
F-ratio	11.38**			30.63**		
R-square	.11			.33		
N	719			695		

+ 더미변수임
* p<0.05; ** p<0.01

마지막 규율위반 유형에는 지정장소 이탈이나 입실거부, 통방이나 통모, 소음유발, 작업 및 교육거부 등 폭력이나 재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규율위반행위들을 가리킨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표 7>의 모델 1에서 보면 연령과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탈모델의 변인 중에서는 구

금고통과 구금기간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금고통이 클수록 구금기간이 길수록 질서위반 행위는 증가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모델의 설명력은 11%였다.

수형자의 피해경험과 직원과의 관계의 질이 질서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유입모델 중에서는 연령과 강력범, 자기통제력이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박탈모델의 변수 중에서는 미지정과 구금기간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은 기타규율위반행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피해두려움과 직원에 대한 불신은 기대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모델 2의 설명력은 33%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교도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수형자 규율위반과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 제시되고 있는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의 요인을 검증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수형자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고려되기 시작한 수형자의 피해경험과 절차적 공정성이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의 20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형자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서 규율위반행위의 다양성을 분석에서 고려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총 규율위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폭력규율위반, 재산 규율위반, 기타 질서위반으로 분류하여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규율위반에 미치는 유입모델의 변인과 박탈모델의 변인만을 비교했을 때 유입모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규율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박탈모델의 변수인 구금기간과 구금고통도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상한 대로 구금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구금의 고통이 클수록 규율위반 행위를 더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불신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구금기간은 유의미한 효과를 유지하였지만 박탈모델에서는 구금기간은 효과를 유지하였지만 구금고통은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대신에 미지정 수형자일수록 규율위반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은 규율위반행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관적인 효과를 보였던 연령이나 자기통제력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해두려움과 직원불신은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둘째, 폭력적인 요소를 가진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입모델에서는 자기통제력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박탈모델에서는 미지정일수록, 구금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구금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폭력적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규율위반행위도 피해경험의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총 규율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두려움과 직원불신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셋째, 재산이나 금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재산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입모델 변수인 연령과 자기통제력이 일관된 영향을 보여주었고 박탈모델 변수 중에서는 구금고통, 구금기간, 그리고 거실밀도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피해경험, 피해두려움, 직원불신 변수가 분석모델에 포함된 경우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는 바, 총 규율위반 행위와 폭력규율위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거실밀도가 재산적 특성을 가진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피해경험은 재산규율위반 행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타규율위반에 속하는 위반행위는 입실거부, 지시불이행, 통방과 통모, 소음유발, 술 만들어먹기와 흡연 등이다. 이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금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구금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규율위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직원불신이 분석에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연령과 구금기간은 여전히 강력한 설명요인으로 남아있었지만 자기통제력과 구금고통은 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피해경험은 일관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입모델과 박탈모델이 상당히 일관적으로 규율위반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각 모델을 대표하고 있는 변인들의 효과는 두 모델만을 고려하였을 때와 다른 제 3의 변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으며, 또 규율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보다는 변인들의 일관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유입모델의 연령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박탈모델의 구금기간은 매우 일관된 효과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두 모델의 변인들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일관적이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큰 것이 피해경험 변수였다는 점도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두 모델의 변인이 함께 설명하는 설명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피해경험이 고려되었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수형자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들의 피해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알 수 있다. 이미 청소년 비행과 여성범죄 분야에서는 피해와 가해의 연계현상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지만 교도소 수형자들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피해경험을 고려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도소내의 네트워크와 위계-권력관계의 유형과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피해의 본질, 그리고 그 피해가 가해와 연결되는 메카니즘에 대한 보다 엄격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피해와 가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피해경험의 영향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분석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경험의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의 발견은 실무 정책상으로도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피해-가해의 연계에 대한 이 결과는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이나 등급 하향조정 등의 처벌적인 대응과 함께 수형자들의 다양한 피해경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형자들의 피해에 대한 몰이해나 무관심은 미래의 규

율위반과 폭력 등의 가해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에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도소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문제행동과 규율위반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찾아내고자 시도된 이 연구는 사례 수나 대상교도소 수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형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와 가해의 연계를 밝혀내려고 시도한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을 대표하는 측정지표들을 다수로 선정하고 다양한 규율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규율위반 행위나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규모보다 상당히 과소보고 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전혀 영향력이 증명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조작화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응답자들이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피해경험을 좀 더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접근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경험의 유형에 따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규율위반 행동유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수형자 행동의 사회적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자료뿐 아니라 조직수준의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다수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13]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13) 사실 다수준 분석을 위해 개인 수형자에 대한 자료와 함께 20개 교도소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으나 다수준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ICC Score)이 충족되지 않아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민수홍(2009) “수형자의 교도소내 인간관계와 프로그램 참여 : 교도소화 대 사회통제이론의 경합.” 『형사정책』 21:191-213.

윤옥경(2009). “교도소 수형자의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 『교정연구』 제45호: 223-251.

윤옥경(2010). “교도소화의 선행요인과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6(1): 145-174.

윤옥경, 이헌영 (2010). “외국인수형자의 피해경험과 규율위반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4(2): 29-57.

윤옥경(2011). “수형자의 행동과 교도소 문화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1:71-95.

Alpert, G. P. (1975). "Patterns of changes in prisoniz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6: 159-173.

Bottoms, Anthony E. (1999) “Interpersonal Violence and Social Order in Prisons.” In Prisons, edited by Michael Tonry and Joan Petersilia, pp. 205-28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ggett, Dawn M., and Scott D, Camp. (2009). "Do Official Misconduct Data Tell the Same Story as the Individuals Who Live in Prison?" Criminal Justice Review. OnlineFirst, published on February 10, 2009. http://cjr.sagepub.com.

Gendreau, P., Goggin. C. E. and M. A. Law (1997). "Predicting prison misconduc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4(4): 414-431.

Grasmick, Harold, Tittle, Bursik and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Gruninger, W. (1975). "Criminal maturity, prison roles, and normative alienation." Free Inquiry 3:38-63.

Hemmens and Marquart (1999). "Straight time: Perception of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 the Prison Environment." 8 in Behind Bars: Readings on prison culture, edited by Richard Tewksbury. pp. 376-38,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Hochstetler, Andy and Matt DeLisi (2005). "Importation, deprivation, and varieties of serving time: An integrated-lifestyle-exposure model of prison offend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257-266.

Huey, Meredith P., and Thomas L. McNulty (2005).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ison suicide: conditional effects of deprivation and overcrowding." Prison Journal 85: 490-514.

Jackson, Jonathan, Tom R. Tyler, Ben Bradford, Dominic Taylor and Mike Shiner (2010). "Legitimacy and procedural justice in prisons." Prison Service Journal(191): 4-10.

Jiang Shanhe and Marianne Fisher-Giordano (2002). "Inmate misconduct: A test of deprivation, importation, and situational models." The Prison Journal 82(3): 335-358.

Kellar M. and Wang Hsiao-Ming. (2005). "Inmate assaults in Texas county jails." Prison Journal 85: 515-534.

Kerbs, John J and Jennifer M. Molly (2007). "Inmate-on-inmate victimization among older male prisoners," Crime & Delinquency 53: 187-218.

Kerley, R., A, Hochstetler and H, Copes (2009). "Self-control, prison victimization, and prison infractions.", Criminal Justice Review, Published online on March 13, 1-16.

Lahm, Karen F. (2009). "Physical and Property Victimization Behind Bars: A Multilevel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3 : 348-365.

O'Donnell, I. and K. Edgar.(1999) "Fear in prison." Prison Journal 79: 90-99.

Reisig, M. D and Gorazd Mesko (2009). "Procedural justice, legitimaxy and prisoner

misconduct." Psychology, Crime and Law(15): 41-59.

Reisig, M. D., & Y. H. Lee. (2000). "Priso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 23-31.

Smith, C. F. and J. R. Hepburn (1979). “Alienation in prison organ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Criminology 17: 251-62.

South, R Catherine and Jane Wood(2006) "Bullying in Prisons: The importance of perceived social status, prisoniz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Aggressive Behavior 32: 490-501.

Steiner, B and J, Wooldredge (2008). "Inmates versus environmental effects on prison rule viola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 438-456.

Sykes, G. (2007[1958]). The Society of Captives: A Study of a Maximum Security Prison with a new introduction and a new epilogu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asca, Melinda, Marie L. Griffin, and Nancy Rodriguez (2010). "The effect of importation and deprivation factors on violent misconduct:an examination of Black and Latino yuth in prison."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8(3): 234-249.

Thomas, C and E. D. Poole(1975). "The consequence of incompatible goal structures in correctional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Penology 3:27-42.

Thomas, C. (1977). "Theoretical perspectives on prisonization: a comparison of the importation and deprivation model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68: 135-145.

Tyler, T.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In Crime and Justice. edited by M. Tonry. pp.283-35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olff, Nancy. and Jing Shi (2009a). "Type, Source, and Patterns of Physical Victimization: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Inmates." The Prison

Journal 89 : 172-191.

Wolff, Nancy. and Jing Shi. (2009b). "Feelings of Safety Among Male Inmates." Criminal Justice Review. OnlineFirst, published on April 3, 2009. http://cjr.sagepub.com.

Wolff, Nancy, Jing, Shi and Ronet Bachman. (2008). "Measuring Victimization Inside Pris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 1343-1362.

Wooldredge, J. D. (1998). "Inmate life styles and opportunities for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480-502.

Wooldredge, J. D. T. Griffin and T. C. Pratt. (2001). "The relevance of hierarchical models for empirical study of inmate behavior." Justice Quarterly 18: 901-929.

Wright, K. N.(1991). "A study of individual environment and interactive effects in explaining adjustment to prisons." Justice Quarterly 8:217-242.

Zingraff, M.T. (1980). "Inmate assimilation: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delinqu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7: 275-92.

An Analysis of Rule-infractions and misconduct of Korean prison inmates : Focusing o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procedural justice

Ok Kyung Yoon*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rule-violations and misconduct of Korean prisoners. The premise of the study is that prison order and safety should be sustained in order to achieve the two main goals of corrections: execution of punishment and, at the same time,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Inmate's misconduct has long been analyzed with the frames of importation and deprivation model; The results are mixed. In some studies the importation model prevails to explain behavior of prisoners, but the deprivation model has more power in explaining prison violence in other studies. Thus, it seems better to find more relevant factors to explain inmates behavior rather than to stick on either/or tests for these two rival hypothes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n prison misconduct, this study tries first to test the importation and deprivation models and then to add two new factors in analyzing rule violations: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fear of victimization of inmates, on the one hand, and perceptions about procedural justice, on the other hand. Using 986 cases from 20 prisons nationwide, this study analyzed various rule violations and misconduct of Korean prisoners. The findings are: 1) age and self-control as indicators of the importation model affected rule violations of inmates consistently.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remained even after other variables entered into the model. 2) the pain of imprisonment and time-served also affected prisoners' misconducts significantly. 3)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of inmates had the biggest power in explaining inmates misconduct. 4) procedural justice represented by distrust with prison staffs failed to show its effect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 Key words: prison inmate, rule-infractions, importation model, deprivation model, victimization experience, fear of victimization, procedural justice

투고일 : 9월 10일 / 심사(수정)일 : 9월 26일 / 게재확정일 : 9월 26일